

# “일할 분 찾아요”…광주 자치구 기간제근로자 ‘구인난’

## 산림병해충방제단…광산구 6차·동구 3차 공고

### 임금·근무지 등 조건 열악…“생활임금 적용을”

광주 자치구들이 공무원·기간제근로자 신규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짧은 계약기간,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가 원인인데, 이는 재직자들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통해 산사태현장에방단(2명), 임도관리원(1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1명)을 모집하는 공고문을 3~5차례 올

렸지만 모두 인력 수급에 실패했다.

자격 기준은 광주 광산구(주민등록상) 거주한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예초기, 기계톱 등 산림 장비 사용이 능숙하고 화물차 등 개인 차량을 소유한 자다.

근무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이며, 임금은 공무원·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일당(8시간 기준) 8만 240원을 받는다.

산사태현장에방단, 임도관리원의 선발 우대조건은 산림 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림 분야 근무 경력, 스마트폰·컴퓨터·GPS·GIS 활용 가능한 자 등이다.

특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화물차(1t 이상) 소유·활용 가능한 자만이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현재 산사태현장에방단과 임도관리원은 4차 공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6차 공고를 올린 끝에 각각 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역시 근로자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구립도서관 책정원 사서 채용공고를 내고 인력(1명) 채용에 나

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력·자격요건은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필수), 1년 이상 도서관 근무·사서 행정업무 경력자(우대)다.

주 5일(오후 1~9시·저녁 시간 1시간 제외) 35시간 근무조건과 2년 계약에 연봉 2773만원(월 231.1만)을 내걸었다. 하지만 모집에 난항을 겪자 기존 직원 9명이 도서관 야간 운영을 위해 지난달부터 추가로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기간제근로자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신분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림 관련 업무에 대한 임금과 자격조건 등은 산림청 기준에 따라야 한다.

산림 관련 업무는 산림청과 광주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지만,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8만240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는 생활임금에 따른다. 실제 광산구 예초 기간제노동자의 생활임금(10만8000원)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광산구 관계자는 “산림 관련 업무는 산을 타거나 예초, 벌목, 산불 예방 등의 업무가 부여돼 타 직렬보다 힘들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자가 있지만, 근무 기간도 짧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다 보니 매

년 4차 공고까지 올린다”고 언급했다.

동구 관계자는 “야간 근무에 근무자가 시내권이 아니어서 지원자가 없다”며 “2년 계약직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대홍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사무처장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만큼 최저시급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시행된 생활임금에 맞춰야 재공고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 광주교육청 기초학력전담교사제 ‘만족 98%’

### 학생·학부모·교원 1400명 설문…학생 97% ‘수업 도움’

광주 학생·학부모·교원이 올해 1학기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 운영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45개교 학생·학부모·교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평균 98%가 기초학력전담교사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의 경우 97%가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수업에 도움이 됐다고 봤으며, 91%가 제도로 인해 학교 생활에 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기초학력 향상(97.2%), 학습 흥미도 향상(97.3%), 자녀 학습 이해도 향상(96.4%)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반 교사의 경우, 제도 만족도는 9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학생 답입교사의 98.9%가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다.

기초학력전담교사의 지도 방식으로 는 학생 중심의 소규모 집중적 심화활

동 학습이 진행되는 ‘풀아웃 수업’을 가장 선호했다.

또 인력 확충, 예산 확대, 교재·교구 보강, 연수와 컨설팅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기초학력전담교사제는 지난 2021년 파견형 5명으로 시작해 올해 공모형 44명, 내부형 1명, 파견형 5명 등 총 5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배움의 씨앗이자 성장의 뿌리”라며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힘을 모아 맞춤형 지원을 넓히고, 제도를 알차게 운영해 모든 학생이 자신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교통안전 체험교육 받는 어린이들 12일 광주 북구 오동동 어린이교통공원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광주어린이안전학교(회장 김은미) 강사들로부터 올바른 킥보드 타기 등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의료 정상화?...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인력 확충

### 전공의 390명·159명 모집공고...필기 면제·사후 정원 인정

의정 갈등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광주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의료인력 확충에 나선다.

특히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도 수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지역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2일 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상급 연차·레지던트 1년 차·인턴)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턴은 전남대병원 60명, 화순전남대병원 32명, 빛고을전남대병원 6명, 성가톨릭병원 6명, 여수전남대병원 2명, 여전전남대병원 2명 등 총 108명이다.

레지던트 1년 차의 경우 전남대병원 본원·화순병원·성가톨릭병원을 합쳐 내과 20명, 소아청소년과 5명, 신경과 2명, 외과 7명, 정형외과 5명, 산부인과 5명 등

총 92명과 별도 정원 10명을 모집한다.

레지던트 상급 연차는 해당 과목 2024년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내과 31명, 소아청소년과 11명, 외과 9명, 산부인과 9명, 마취통증의학과 15명, 응급의학과 12명 등 총 180명이다.

전남대병원은 올 하반기 모집에 한해 20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에 다시 합격한 전공의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모집 인원보다 합격 예정인 원소속 복귀 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신규 채용한다.

조선대병원도 올해 하반기 응급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레지던트 상급 연차 총 79명을 뽑는다.

레지던트 1년 차는 45명을 모집 목표로 2024년 사직 전공의가 같은 해 합격한 병원·과목에 지원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인턴은 총 35명 모집한다. 각급 전공의 응시 지원자 중 올 하반기 모집에 한해 지난해 상반기 합격 이후 사직 전공의가 같은 진료과에 다시 지원해 합격하면 모집 정원을 초과해도 뽑기로 했다. 만약 진료과별 모집 정원보다 원소속 복귀 합격자가 적으면 신규 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다.

그동안 광주 상급종합병원들은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모집에 나섰으나 인력 충원에 실패했다.

전남대병원은 수련평가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105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는 단 2명이었다. 같은 기간 조선대병원도 레지던트 1년 차 47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는데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채용에선 지원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력이 대거 복귀하면 입원·외래 진료도 점차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무등산 의재문화유적 복원 본격 추진

### 동구, 11월 설계 공모안 선정 발표

12일 동구에 따르면 무등산 의재문화유적지는 남송문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이 거주하며 문화창작 활동 등을 펼친 공간으로,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인문학적 가치, 예술적 자산이 깃든 광주의 상징적 장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으로 추진한 이번 복원사업은 의재 선생의 철학과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무등산이 품고 있는 인문학적 유산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문화와 예술, 자연

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구는 국내 대표 건축가 6인을 지명해 진행하는 지명 설계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해 9월 최춘용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 지난달까지 건축기획(안) 수립과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지역건축단체 의견수렴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공모에는 김종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다미 플로리안파우나 소장, 임태형

플랜 건축사무소 소장, 정동현 플랫폼시아 소장, 정현아 디아건축사무소장, 최옥 원오원아키텍스 소장 등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참여한다.

설계 공모 일정은 현장설명회, 설계공모안 제출 등을 거쳐 오는 11월5일 최종 심사 후 같은 달 7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동구는 무등산 의재문화유적 복원사업과 함께 지난 4월부터 무등산 춘설차발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8월 차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경작로(도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들 사업은 의재문화유적 복원과 함께 연결돼 무등산의 핵심적인 문화예술·체험 관광 벨트로 구축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무등산의 유적  
동명동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010-6411-7975

소중한 날엔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하세요

- 꽃분이 로고는 사랑입니다.

동명동 **꽃**플라워 카페

- 꽃·식물 (꽃다발, 꽃바구니, 꽃박스, 화환)
- 공간연출 (행사, 포토존, 웨딩연출)
- 부케드라이 (부케액자, 부케무드등, 부케캔들)
- 커피카페 (관심리오프라인)

010. 6411. 7975

m.blog.naver.com/qwer445566

instagram.com/flower\_buni

전남대·교  
광  
국립아시아  
문화재단

광주 동구 제봉로 140번길 4